

유아의 불안 정서에 따른 대처반응

정 미 영(초당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김 경 회(목포대학교 소비자아동주거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5세에서 7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아의 불안 정서에 대한 대처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불안 정서의 정도와 그 대처반응은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대처반응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불안 정서감소에 영향을 주는 대처반응은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목적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불안 정서의 정도는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불안 정서에 대한 대처 반응은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불안 정서의 정도와 대처반응과는 어떠한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본 연구의 대상은 5~7세에 해당하는 남녀 유아로 98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는 Halpern(1999)의 유아의 불안 정서에 대한 대처반응 척도로서 면접용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연구를 위하여 이 척도를 유아심리 및 상담 전문가 2인의 도움을 받아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여 전산처리를 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 이원변량분석, Scheffe의 사후검증법, Pearson의 상관계수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불안 정서의 정도는 성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불안 정서에 대한 대처반응에서는 유아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문제해결 대처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3. 불안 정서 정도와 대처반응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